

국군TV 개국 축하 메시지

국군장병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국군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동안 개국을 위해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

국군TV는 우리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 장병들의 군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. 자녀들의 군생활을 TV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훨씬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저는 국군TV 개국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서부터 장병들의 복지문제까지 있는 그대로를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'국민과 함께하는 국방'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.

국군장병 여러분,

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모두들 건강한지, 내무반은 따뜻한지 늘 염려가 됩

니다. 동료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보람있는 군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며, 국군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